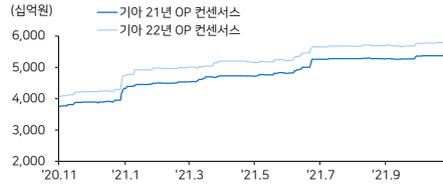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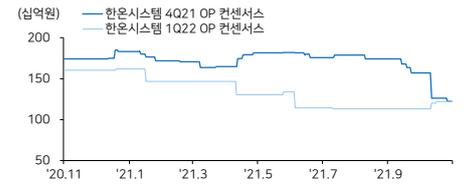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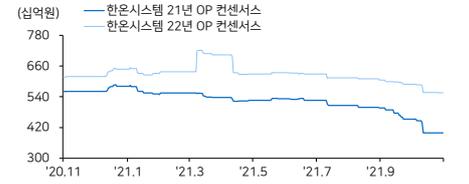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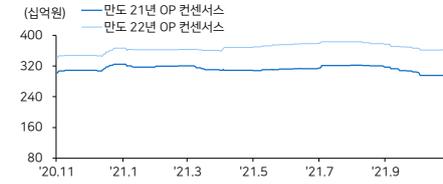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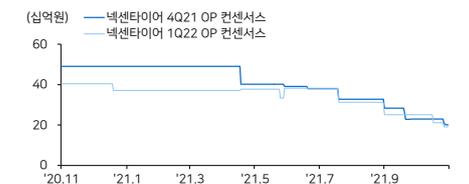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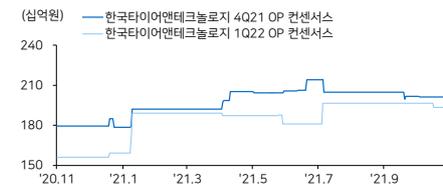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1년 기다리던 차 빨리 받을 수 있나'...현대차 울산 공장 주말특근 도입한다는데 (헤럴드경제)

현대자동차가 이번주 토요일 울산 공장 풀가동에 돌입. 울산 1~5공장 전체가 주말 특근을 하는 것은 이례적. 최장 1년까지 걸리던 출고 적체가 해소될 수 있을지 기대됨. 현재 제네시스 GV60은 주문 후 인도까지 최대 1년이 소요됨. <https://bit.ly/3Ea1vU3>

삼성 차량도체, 폭스바겐 전기차에 탑재 (한국경제)

삼성전자의 차량용 시스템반도체 '엑시노스 오트 V7'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인 폭스바겐 전기차에 탑재됨. 차량에 들어가는 고사양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필연 - 인텔 등과의 한판 승부가 시작됐다는 평가. <https://bit.ly/3EaU0Hb>

Tesla's Giga casting strategy to be adopted by half a dozen other automakers (electrek)

Tesla가 기가캐스팅을 공급하는 업체는 6개의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와 협력 중이라고 언급함. 그러나 유사한 기술을 위해서는 차량 디자인, 소재 등의 기술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 테슬라는 오랜 시간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기가캐스팅을 디자인함. <https://bit.ly/3d85JzT>

Auto executives expect EVs will own half of U.S., China markets by 2030 (Reuters)

자동차 업계 경영진은 2030년까지 미국과 중국에서 전기 자동차가 보조금 없이 신차 판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그러나 향후 몇 년간 하이브리드/내연기관차 역시 상당한 판매증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함. <https://reut.rs/2ZDm3p2>

현대차·기아, 지멘스와 차세대 설계환경 구축한다...파트너십 체결 (THE GURU)

현대차·기아는 지멘스와 파트너십을 체결. NX™ 소프트웨어와 팀센터 소프트웨어를 표준 솔루션으로 활용할 계획. NX™ 소프트웨어는 산업용 전장 및 자동차 설계를 위한 중앙 설계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솔루션 제품군. <https://bit.ly/3D4SeeL>

전기차 업계는 리튬 전쟁 중...배터리 1위 CATL은 광산 인수하려다 굴욕 (조선비즈)

CATL은 남미 리튬광산 Pastos Grandes 프로젝트를 위해 밀레니얼리튬을 인수하려고 했으나, 간퍼리튬의 최대주주인 캐나다 리튬아메리카스가 밀레니얼리튬을 인수함. 현재 전 세계 리튬의 절반 이상이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쓰임. <https://bit.ly/3oaUH8>

Cybertruck will have yoke steering wheel, Elon Musk says will be a 'tech bandwagon' (electrek)

일론 머스크는 향후 출시될 사이버트럭에는 요크 스티어링 휠이 장착되며 더 많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것이라고 언급함. 테슬라는 'Steer-by-wire' 기술이 요크 스티어링 휠에 이상적이라고 언급하며 해당 기술을 개발 중. <https://bit.ly/3G7Ds9b>

VW negotiations going well, under-fire CEO Diess says (Automotive News)

EV 전환 전략으로 노조에 공격당하고 있는 VW CEO는, 노조와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자율주행 개발과 중국 판매 증대 등 상황이 긍정적이라고 언급. 또한 VW가 공급망 위기를 극복, 내년 전량기 개선된다고 덧붙임. <https://bit.ly/3loX6dl>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